



이희호 명예총재가 이해찬 교육부 장관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친구 이희호 명예총재는 11월 5일 11시 청와대에서 사랑의 바자 한마당 (10월 24-25일 이화여고에서)의 수익금 9억5천만원을 이해찬 교육부 장관과 송경용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희호 명예총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사랑의 친구들이 창립했다”고 밝히고 바자회에서 모아진 9억이상의 성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대단히 기쁘다”고 말하고 도움을 준 개인과 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성금은 교육부에 6억,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에 3억5천만원이 전달됐다. 기금을 전달받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급식비 예산 부족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도시 세입자,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가정 결식학생들의 급식비를 충당하는 데에 쓰겠다”고 밝혔다. 송경용 신부는 “굶는 아이들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어서 눈물나게 고맙다”고 전하고 “전달받은 성금을 요긴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식에 이은 오찬에

서 이 명예총재는 초청의 말을 통해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뜨겁게 내미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담아내겠다” 말했다.

오찬에는 사랑의 친구들 관계자와 미주나라사랑 어머니회 방숙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6명이 초청됐다. 헤드테이블에는 윤세영 SBS 사장,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총재, 장영신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윤장순 사랑의 바자회 준비위원장, 방숙자 미주나라사랑 어머니회 회장, 송경용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대표, 유분자 미주나라사랑어머니회 서부회장이 앉았다.

방학기간 먹거리 해결 집중기로

사랑의 친구들은 바자회 결산 내역을 투명하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성금을 낸 후원자는 물론 바자회 행사장에서 3천원 짜리 행운권을 산 사람들에게도 모두 결산 내역을 알려주고 있다. 창립 때부터 표방한 “투명한 운영”의 일면인 것이다.

12월에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행사를 계획했던 사랑의 친구들은 방학기간동안 결식아

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결식아동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영숙 총재는 “방학기간에는 급식할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이므로 지자체별로

성금 9억 5천만원 교육부와 ‘먹거리나누기’에 전달

방학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급식 시설을 조사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12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결식아동 후원을 위한 기획프로그램을 방영하고 ARS를 설치해 대대적인 모금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랑의 친구들은 후원회를 곧 결성할 예정이다. 후원회에는 이길녀, 변주선, 김인숙, 장영신, 조안리, 심치선, 문태임, 강태영 씨 등에게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랑의 바자 한마당 성금내역

사랑의 친구들이 밝힌 사랑의바자 한마당 성금내역에 따르면 총액은 약 9억5천만원. 이중 특별헌금이 1억6천만원인데 여기에는 나라사랑 어머니회 2천5백만원, 교육부 7천6백만원 SBS 6천2백만원의 성금이 포함돼 있다.

바자회 당일에는 기업출품 약 1억6천만원, 명사기증품 2억1천만원, 먹거리장터 1천5백만원, 행운권 9백만원, 알뜰

장터 5백만원 현금 3억9천만원 등을 합해 총 7억9천만원의 수익이 있었다.

특별헌금 1억6천만원과 바자회 수익 7억9천만원을 합해 총 수익금이 된다. 정확한 수익금은 9억5천7백7십8만6천1백60원. 〈김효선 편집부장〉

후원계좌

결식아동 돕기	한국의환은행 211-13-07835-6
실직여성가장 돕기	농협369-01-009385
노숙자 돕기	국민은행070-01-0437-948
장애아동 돕기	신한은행396-12-081460
사랑나누기 활동	한미은행351-74170-265
예금주: (사)사랑의 친구들	

바다 건너 달려온 모성과 애국심

인터뷰 - 미주나라사랑 어머니회 회장단

사랑의 친구들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더 눈길이 가는 이들이 미주나라사랑 어머니회이다. 누구보다 먼저 한국의 결식아동을 후원하겠다고 성금을 모아 사랑의 친구들에 전해온 제일 부지런한 회원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희호 여사와의 만남에서 조국의 결식아동에 관한 걱정을 접하게 됐다. 조국에 굶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소식에 놀란 이들은 즉각 어머니 사랑을 실천할 조직화에 들어갔다. 7월 뉴욕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

서부지회, 시카고에 중부지회, 워싱턴에 동부지회를 결성하는 정열적인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회원은 매달 10불씩 연 120불의 회비를 내야만 하고 여성만이 회원자격이 있다. 남성은 후원할 수는 있으나 회원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방숙자 미주나라사랑어머니회 회장은 “조국의 어린이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에 사는



11월 5일 이희호 명예총재가 초청한 청와대 오찬을 마친 미주나라사랑 어머니회 회장단은 사랑의 친구들 사무실에서 마련한 환영회에 참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래줄 왼쪽부터 방숙자 총회장, 손목자 사무총장, 유분자 서부회장, 위줄 왼쪽부터 강홍순 동부 부회장, 김경희 중부회장, 심정열 중부 부회장.

한국 어머니들이 힘을 합쳐 다는 것 자체가 값진 일”이라며 “보통여성들의 광범위한 여성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방숙자 회장은 “미국에서 매달 10불이면 대단히 큰

돈이지만 기꺼이 힘을 모으고 있으니 한국의 어머니들도 바로 옆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에 함께 힘을 합해 조국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고국의 여성들에게 당부했다.